주간 보험동향

2001.3.26	동향분석팀	제74호

1. 금주의 Highlight

◆ 2000년 경제성장률 8.8% 기록

2. 금융동향

◆ 금리 : 전주대비 0.19%p 상승

◆ 환율 : 원/달러 상승, 엔/달러 하락

◆ 주가 : 전주대비 0.1% 하락

3. 보험산업 동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실 생보사 처리 재검토

◆ 소비자보호원, 보험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 일본 토쿄생명 파산

◆ 대한화재, 에이스그룹과 지분 매각계약 체결

KIDI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1. 금주의 Highlight : 2000년 경제성장률 8.8% 기록

□ 국내 실질 GDP 증가율은 99년 10.9%에 이어 지난해에도 8.8%의 고성장을 기록한 반면, 2000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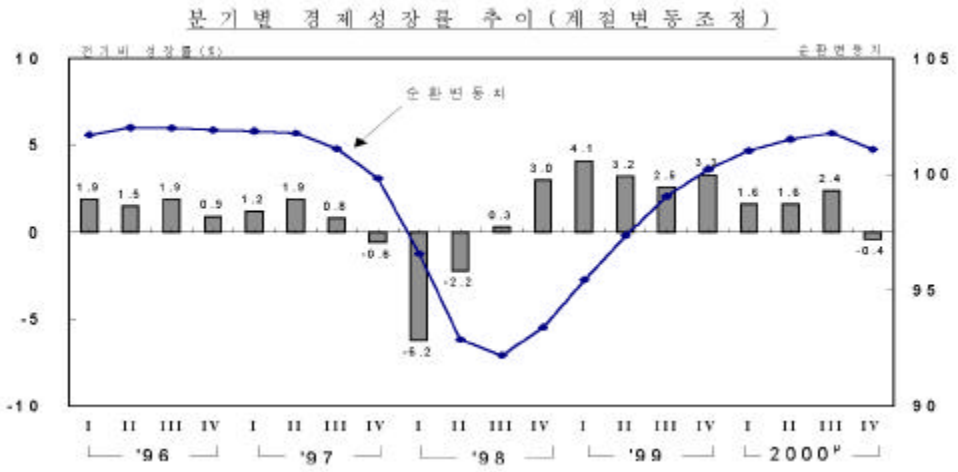
- o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경기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3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뒤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o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국내 증시침체 및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미국·일본 경제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해외 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로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과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의 하락에 다른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대비 2.3% 증가에 그침.

- o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9,628달러로 전년(8,551달러)보다 1,077달러 증가하였음.

□ 총저축률은 32.3%로 전년(32.9%)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투자 감소폭 축소에 따라 전년(26.9%)보다 크게 높아진 28.8%로 나타남. .

□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이지만 빠른 속도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금융동향

□ 금리

- 회사채 금리는 원-달러 환율 불안과 미국 및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 매수심리가 취약해지며 상승세 시현. 전주 대비 0.19%p 상승.
- 국채 금리도 전주 대비 0.15%p 상승.

주요 채권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전주대비
회사채	7.06	7.07	7.17	7.29	7.21	+0.19%p
국 채	5.64	5.63	6.71	5.85	5.76	+0.15%p

□ 환율

- 원화는 달러/ 엔 강세 지속, 정유사 등의 결제수요가 강화되며 원/ 달러 환율이 1,310원대를 넘어서는 약세 시현.
- 엔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엔화 약세 용인 가능성을 일축한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주중반 일본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다시 약세로 반전, 주말 Tokyo Mutual Life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해외수익 본국송금 증가 전망으로 강세 시현.
- 유로화는 FRB의 0.5%p 금리인하 발표에 따른 美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주중반 이후 프랑스의 경제성장예상 하향조정, 유럽증시 부진,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ECB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약세로 반전.

주요 환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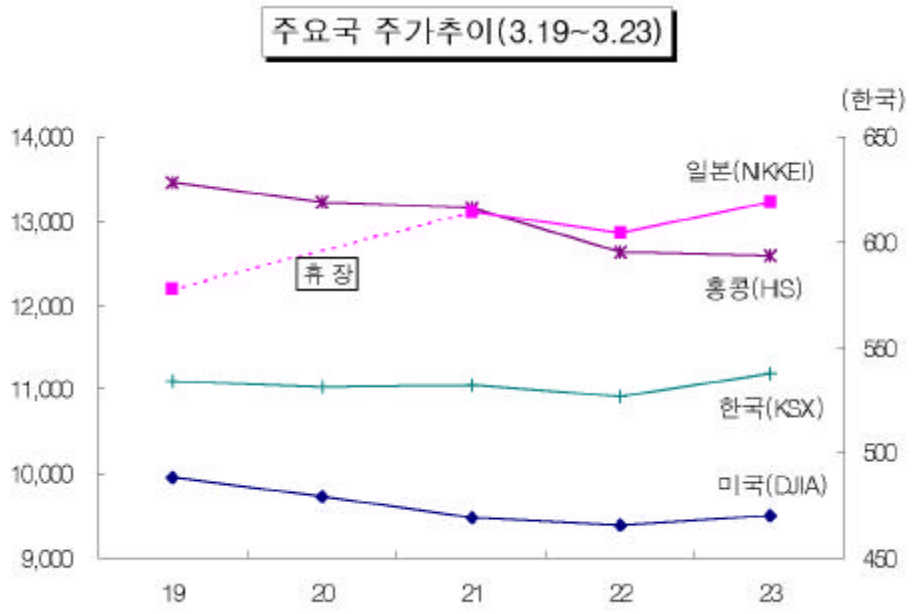
구 분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전주대비
원/ 달러	1,299.40	1,295.90	1,305.30	1,318.60	1,307.10	+14.80
원/ 100엔	1,052.74	1,057.45	1,059.93	1,065.36	1,064.41	+8.61
엔/ 달러	122.94	122.22	123.44	123.51	122.79	-0.22
달러/ 유로	0.8991	0.9096	0.8960	0.8892	0.8897	-0.01

□ 주식시장

- 금주의 주식시장은 나스닥, 일본 증시 하락 등의 해외 악재가 부담으로 작용,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등 관망세를 보이며 주가지수가 530p를 전후로 등락하며 혼조세 속 약세 시현.
-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0.1% 하락.
-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금리 인하폭이 0.5%포인트에 그친데 따른 실망감, 경기둔화 추세 속에 P&G의 대규모 감원 검토 소식, 지난달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시현. 전주대비 3.2% 하락.
- 일본은 8.0% 상승.
- 홍콩은 6.9% 하락.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구 분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전주대비
한 국(KSX)	534.33	531.59	532.59	527.05	537.96	-0.71
미 국(DJIA)	9,959.11	9,720.76	9,487.00	9,389.48	9,504.78	-318.63
일본(NIKKEI)	12,190.97	-	13,103.94	12,853.97	13,214.54	+981.56
홍 콩(HIS)	13,457.69	13,223.86	13,154.44	12,621.85	12,583.36	-938.68



3. 보험산업동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실 생보사 처리 재검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부실 생보사 처리방안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
- 동 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3개 부실생보사에 대한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청산과 계약이전방식(P&A)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위원장은 예보 실사결과 삼신생명을 제외한 한일과 현대생명의 경우 계약이전방식보다는 청산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의견임.
- 위원장은 청산시의 비용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경제적 문제, 즉 청산시에는 보험가입자 피해, 고용 불승계,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위원장은 따라서 청산시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최종적인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소비자보호원, 보험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보험분야 업무분석 결과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피해구제 건수로 손해보험(52.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보험(32.4%), 기타 공제(9.2%), 상조회(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1천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으며, 소비자 상담도 1만 2천 210건으로 97% 증가하여 지난해 각종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요청이 전년대비 119.8%나 증가했으며, 생명보험도 보장성 보험이 78.1%, 단체보험의 경우 99년 17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세를 보임.
- 피해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회피와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만이 각각 327건과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에 대한 불만(181건), 보험금 지급지연(67건), 장애등급 하향 적용(65건) 등의 순이었음.

□ 일본 토쿄생명 파산

- 경영부실 상태에 있던 일본의 중견 생보사인 토쿄생명이 갱생특례법(법정관리법)적용을 토쿄지방법원에 23일 신청하여 사실상 파산하였음.
- 토쿄생명은 작년 4개 생보사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보험계약자의 해약이 급증하자 관계사인 다이와은행과 미국의 GE 케피털사와 자본 증강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갱생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양사의 견해에 따라 증자에 실패하여 결국 파산하게 되었음.
- 토쿄생명은 작년 9월말 시점에서 시가로 산정한 순자산액이 5억엔이었으며, 지급여력 비율도 370%에 불과하여 중견생보사 중에서 최하위였음.
- 토쿄생명은 재무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그 동안 미국의 GE 케피탈사에 경영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하기 위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연간 100억엔에 달하는 역마진을 안고 있었음.

□ 대한화재, 에이스그룹과 지분 매각계약 체결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가 20일 에이스그룹과 전체 15%에 해당하는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에이스그룹은 계약금 50억원을 이달 안에 지급한 다음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3백 50억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대한화재는 이같은 자금조달 계획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오는26일 제출할 방침임.
- 한편, 금감위는 개별기업이 보유 지분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지만 에이스그룹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능력, 신용도 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승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임.
- 금감위는 지난 6일 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대한화재의 에이스 그룹과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매각이나 계약이전(P&A)등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짐.